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중추기관"으로 제2의 도약

급속하게 첨단화, 융합화, 거대화 되고 있는 세계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R&D가 보다 효율적으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인프라를 구축하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국가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중추기관"이라는 기관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맞춰, 고유의 과학기술정보, 정보 분석, 슈퍼컴퓨팅, 초고속연구망 등의 주요 기능을 미래핵심사업 중심으로 집중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연구단위 사업단의 구성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체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NTIS사업단', 원거리에 있는 첨단 연구 장비, 대용량 데이터, 연구인력 등을 시공을 초월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첨단화 하는 'e-Science사업단', 그리고 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NDSL사업단' 이렇게 3개 사업단을 핵심 사업단으로 신설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사업단’은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와 인력은 물론 우리 연구원이 축적한 방대한 지식정보 등 과학기술 R&D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산·학·연·관의 수요자가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연구원은 4월 25일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제관리기관 등 참여부처들을 대상으로 ‘2006 NTIS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NTIS 구축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Science사업단’은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 우리의 e-Science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한다. 지난해 8월 전 세계를 잇는 정보 고속도로인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 글로리아드(GLORIAD)의 핵심참여국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융합, 고에너지물리와 같은 거대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e-Science사업단은 10Gbps급 GLORIAD를 기반으로 우리의 연구자들이 사이버 상에서 지구촌 곳곳의 연구자들과 시공을 초월해 첨단 연구장비, 대용량 데이터, 연구 인력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협업연구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제적 e-Science 연구 환경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NDSL사업단’은 우리 연구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사업을 흡수통합하면서 새롭게 조직됐다. 지난 3월 27일, 양 기관 간 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관을 마무리 지은 NDSL사업단은 앞으로 국가 전자 정보자원 로드맵을 작성하고 온·오프라인과 동·서양 정보자원이 연계된 명실상부한 윈스톱 과기정보 포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과 오픈액세스 이니셔티브(OAI) 기반의 국가 디지털라이브러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제 우리 연구원은 NTIS, e-Science, NDSL 등의 첨단 연구인프라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중추기관”으로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R&D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Science

N T I S

N D S L